[축구]귀신도 모르는 베컴 진로

written by 브레인공작 / 2003-06-16 22:45:00

“ 강 팀을 만든다고 했을 뿐 베컴 영입을 약속한 건 아니다. ” 잉글랜드의 월드스타 데이비드 베컴(28、맨체스터 유나이티드) 영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FC 바르셀로나(스페인) 회장에 뽑힌 후안 라포르타(40)가말을 뒤집는 등베컴 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.

라포르타는 16일(한국시각)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에서 53%의 지지율로 당선된 직후 스페인 국영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“ 베컴 영입을 위해 그의 에이전트와 협상에 나서야 하는 등 영입이 성사된 건 아니다 ” 며 꼬리를 내렸다.앞서 라포르타는 회장 선거 유세에서 “ 맨체스터와 이적료 4,800만 달러(약 573억원)를 주고 베컴을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” 며 영입을 기정 사실화했다.

스페인 언론은 그러나 라포르타의 당선은 베컴 영입 공약이 선거인단에게먹혀 든 결과이기 때문에라포르타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영입에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며 베컴의 바르셀로나 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.

출처 : 한국일보